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오세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76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9. 29.

발 의 자 : 오세정 · 김세연 · 나경원
설 훈 · 유성엽 · 박경미
김경진 · 김관영 · 이동섭
신용현 · 박주현 · 김병욱
이재정 · 이용호 · 김삼화
김상희 · 송기석 의원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학의 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그 추진 실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평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.

그러나 전국 4년제 대학의 여대생 비율이 42%이고 박사취득자 중 여성의 비율이 38%임에도 불구하고 국·공립대 평균 여성교원의 비율은 15%에 불과하여 교원의 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채용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국가와

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의무적으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함(안 제11조의3제1항 및 제11조의5제3항).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3의 제목 중 “신규채용”을 “신규채용의 다양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사람이”를 “사람이나 성별이”로 한다.

제11조의5제3항 중 “평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”를 “매년 평가하여 공표하고, 평가결과를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의3(대학 교원의 <u>신규채용</u> 등) ①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<u>사람이</u>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, 그 구체적인 채용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제11조의3(대학 교원의 <u>신규채용의 다양성</u>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사람이나 성별이</u> ----- ----- -----.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11조의5(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) ①·② (생략)	제11조의5(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계획 및 그 추진 실적을 <u>평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	③ ----- ----- ----- <u>매년 평가하여 공표하고, 평가결과를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.</u>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